

# 종교 자유·보편성 바탕한 교육해야

## 김용표 교수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얼마 전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던 강의석(24)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종교자유'를 둘러싼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면서 전국 578개 종립 초·중·고교의 종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강의석 씨 판결이 바람직한 종교교육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표 동국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정우서적 펴냄)에서 "종립학교는 인간을 종교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종교교육을 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이 현재의 종교교육에도 투영돼야 한다"며 현행 불교계 종립학교의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종교의 자유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교리나 감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특정종교나 이데올로기로 이의 집단화하려는 비종교적인 야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표 교수는 현대의 종교자유 문제의 해결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교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배타적인 절대 진리 주장을 재검토할 것 △여러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종교학 교육의 확산과 종교 간의 대화를 위

한 이론과 방법의 교육을 실시할 것 △종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종교교육 자유의 의미·한계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것 △종립학교는 건학이념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할 것 등이다.

김용표 교수는 위대한 교육자였던 부처님의 교육체제인 방편시설(方便施設)을 고찰하며 현대 교육적 의미를 살폈다.

김 교수는 "부처님은 교육의 방법을 중요시 여겨 학습자의 수준(단계)에 따른 교수법을 적용했고, 권위주의적인 교사상을 벗고 제자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했다"며 "부처님의 교육이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채워주는 교육'보다 학습자의 잠재적 소양을 개발 시키려는 '이끌어 내주는 교육'의 모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김 교수는 "부처님이 인류의 큰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교육방법의 수승함에 있었다. 현 교육계는 이를 현실 교육에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제7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개정된 현행 불교계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재에는 3가지가 있다. 조계종출판사와 진각종에서 각각 펴낸 <종교(불교)교과서와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집인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불교시청각 교재>(조계종출판사 펴냄)가 그것이다.

김용표 교수는 조계종출판사와 불교교육연합회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불교계 중립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의 모델을 모색했다.

김용표 교수는 "제7차 교육과정 이 지향하는 목표는 보편적 종교문화교육이다. 불교의 종교교육 목적과 목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으나 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모순이 없으며 그 정신과 상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교재를 편찬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며 △교재의 외형적 체제 △학생들의 이해 능력과 정도 △흥미도와외 관계 △내용의 안배와 효율적 편집 고려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김용표 교수는 "교재에 대한 첫 느낌은 표지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불교교재의 표지는 불교사, 연등제, 해인사 장경각의 팔만대장경 등 불교를 대표하는 요소들로 구성됐지만 사실 역사적이라 불리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며 "널리 알려진 평범한 사진보다 산사의 고요한 정경, 만다라 등 불교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교재는 단순한 교리 나열식으로 학생들에게 여전히 난해하다. 인터넷·성·가정·경제 문제 등 학생들의 현실적 정서와 맞는 테마로 재구성하고 문제의 해답을 불교에서 찾는 방식의 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종교·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적 체제를 강조하기보다는 불교가 지닌 진리의 보편성·논리성·관용성 등 그 합리적인 가르침을 통해 종교적 신앙교육의 강조 없이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뮐러는 "하나의 종교밖에 모르는 이는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뮐러와 마찬가지로 세계종교사의 맥락에서 불교 개신교 등 개별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표 교수는 "세계종교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파악하고 다른 종교사상과의 교섭관계를 중시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정종교를 따로 분리해 이해하려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냐은 기자 byohyung@buddhapia.com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오른쪽).



이냐은 기자 byohyung@buddhapia.com

# "정신 계몽 불교가 담당해야"

## '마음사상' 7집 청담 스님 재조명

청담 대종사(1902~1971)는 근·현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선지식이다. 불교정화 운동과 호국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던 스님은 '마음'을 중심으로 한 생활불교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청담 스님의 사상은 마음을 중심으로 불교의 핵심교리에 대한 전통적·현대적 해석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사상을 1960년대 조계종에서 발행한 '대한불교'에 기고한 스님의 글을 통해 재조명했다.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동국대 박사과정)는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구)가 최근 펴낸 <마음사상> 제7집에서 '청담 대종사 사상연구'를 주제로 기고논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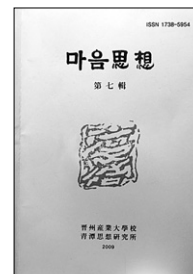
이성수 기사는 1960년대를 중심으로 청담 대종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40여 편의 글을 통해 그의 사상을 조명했다.

이 기사는 "1960년대 중반에서 발간한 '대한불교'를 통해 발표된 청담 대종사의 글은 그의 종단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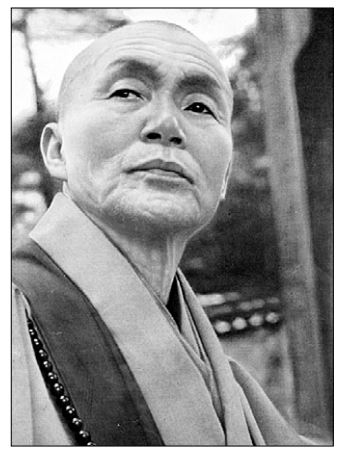
행관·종생관·사회관·이웃종교관·문학관·언론관 등을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다"고 말했다.

청담 대종사는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논할 때 아주 중요한 선지식이다. 스님은 문경 봉암사 결사와 한국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총정·장로원장·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았다.

이성수 기사는 "청담 대종사는 승려들의 자아수련과 역량 배가를 통해 인천(人天)의 사표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신도들에 의지하지 말고 자립경제와 사원경제 확립에 매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한 청담 대종사(1902~1971·오른쪽).



진할 것을 당부하고, 선농일치 실현을 목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담 대종사는 서구사회의 물질만능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한 당시 사회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며 정신계몽운동을 불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청담 대종사는 1960년에 창간된 '대한불교'의 초대 발행인이자 사장이었다.

이냐은 기자

# 문화재청 국보·보물 명칭 쉽게 개정

충남 논산의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408호)과 경북 하동의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이 '논산 쌍계사 대웅전'과 '하동 쌍계사 대웅전'으로 바뀐다.



보물 제500호 논산 쌍계사 대웅전. 사진=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명칭으로 인해 헷갈리기도 했던 명칭들이 새롭게 개정됐다. 문화재청은(청장 이경무)는 4월 27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명칭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지정명칭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명칭 개정은 문화재 전반에 현재의 지명을 붙여 문화재의 위치나 소재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도산서원상덕사 부정문급사주도봉(보물 제211호)'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

자어나 구어체가 사용된 명칭에 대해서도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정문'과 같이 쉬운 말로 변경했다.

또한 '서울송례문(남대문)'을 '서울 송례문'으로,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서울 흥인지문' 등 별칭은 없애고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삼았다.

별칭은 안내문 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했으며, 명칭 표기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번 문화재청 지정명칭은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701건 중 목조문화재 151건이 개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석조문화재 550여 건도 명칭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 제8알라야식 전분야서 심층분석

## 불교학연구회·금강대 불문연 5월 7~8일 춘계학술대회

알라야식은 서구에서 잠재의식보다 깊은 심의식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업이 기록된다는 제8알라야식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5월 7~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알라야식 개념의 형성'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알라야식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부 망라해 발표주제로 삼았다.

7일에는 '알라야식 개념의 형성'을 주제로, 8일에는 '알라야식 개념의 동아시아·티베트에서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열린다.

김성철 금강대 교수는 '알라야식 기원에 관한 최근의 논의'의 주제를 문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알라야식

을 유럽 불교학자 슈미트하우젠과 하르트무트 뷔셔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슈미트하우젠은 알라야식의 기원으로 <유가사지론> <본지분> <삼마히다지>에 나타난 '도입'을 제시한다. 그는 도입문을 분석하면서 알라야식이 멸진정 상태에서 '신체에 부착해 있는 식'이라는 의미에서 도입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최근

하르트무트 뷔셔는 슈미트하우젠의 이론을 철저히 비판하고 알라야식 <해심밀경>의 새로운 존재론을 바탕으로 '잠재적 식'이라는 의미에서 도입됐다고 반박한다.

김 교수는 이 두 주장을 중심으로 알라야식의 기원에 관한 연구와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소개한다.

이 밖에 학술대회에서는 △정승석 동국대 교수-상키야 철학에서 알라야식 유형의 원리 △박창환 금강대 교수-알라야식의 형성과정에 미친 종자설의 영향 등이 발표된다. (031)980-7775

이냐은 기자



# 전통불교천지대왕종

##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족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들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대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평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하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중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중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중단 의식교전 및 중원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범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